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장 유 경
한솔교육문화연구원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한국 영아들의 어휘발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한국 영아들은 20~21개월 사이에 100개의 어휘를 습득하며 23~24개월 사이에는 어휘폭발이 일어나서 하루 평균 3~4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였다. 36개월 경에는 약 500개의 표현어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표현어휘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어휘들의 구성비율을 보면, 전체 어휘 중에서 명사가 동사와 형용사보다 2배 가량 더 많았으며 문법적인 기능어의 비율은 전체 어휘수에 따라 증가하였다. 셋째, 영어, 이탈리아어의 어휘획득과 비교할 때 어휘의 구성비율은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하였다. 넷째, 문법적인 기능어의 습득순서와 비율을 영어, 이탈리아어와 비교하여 볼 때에 특히 위치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경우, 습득순서에서 언어 간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어 : 어휘발달, 18~36개월, 문법적 기능어, 제약성, 언어적 특수성

영아들은 10개월 경 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여 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년 남짓한 기간동안 영아들은 모국어의 어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까지 습득하게 된다. 영어를 말하는 영아들은 일반적으로 9개월경에 어휘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12개월이 되어야 새로운 어휘를 산출하고 이해어휘가 50개가 되는 시점은 13개월경이며, 12개월 이후부터 하루 평균

1단어를 학습하여 18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평균 50개의 어휘를 말하게 된다(Bloom, 1993; Bloom, Tinker, & Marguluis, 1993; Dromi, 1987, 1993; Nelson, 1973).

한편 8개월부터 17개월까지 한국 영아의 어휘습득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 직후 12개월에서 13개월 사이에 표현어휘가 급증하며 표현어휘가 50여개가 되는 시점은 17개월이었다. 표현어휘보다 이해어휘가 평균 3배 정도

본 연구는 2002년 학술진흥재단에서 광금주, 장유경, 성현란과 심희옥에게 지원한 기초학문 육성과제(과제 번호: KRF-2002-074-HM1006)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방대한 연구의 진행에 수고해주신 이지연 연구원과 연구팀, 자료의 처리를 담당해주신 임현정 연구에 참여해주신 아기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신저자 : 장유경, 한솔교육문화연구원. E-mail: ykchang24@hanmail.net

더 많았으며, 12개월과 13개월 사이에 12.8개, 16개월에서 17개월 사이에 13.2 개의 표현어휘가 증가하였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표현어휘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이해어휘 수에 있어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 표현어휘의 내용은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를 포함하여 명사류가 반 이상을 차지하며 보통명사는 27%에 해당하였다. 명사류와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휘들을 포함하면 전체 표현어휘의 90%가량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동사는 전체 표현어휘의 4.2%를 차지하였다. 8개월 무렵부터 17개월까지 한국 영아들의 어휘습득은 한국어와 언어적 구조가 상이한 영어, 이탈리아의 초기 어휘발달과 매우 유사했으며 이는 초기 어휘습득과정에서 작용하는 제약성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되었다(장유경, 2004).

이렇게 다양한 어휘의 습득과 함께 문법의 습득 역시 중요한데 17개월까지의 어휘습득 과정에서는 문법적인 기능어의 습득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현어휘수가 50개 이상이 되는 시기를 전후해서 어휘습득의 속도가 달라지고 한 단어 단계에서 두 단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에는 명사 이외의 동사 및 서술어, 기능어의 증가가 나타난다(Gentner, 1982).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표현어휘가 50개 이상 되는 시점이 17개월이므로 17개월 이후 어휘습득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어휘폭발이 나타나고 문법발달이 진행될 것이다.

Gentner(1982)에 의하면 초기 어휘발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사한 모습과 속도로 진행되기보다 단계적인 성격을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단계는 다른 단계보다 어휘습득의 속도가 느리고 습득되는 어휘의 종류도 다르다. Gentner의 어휘발달의 단계 모델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휘발달 단계 모델

일상생활용어와 말놀이 (Routines & word games)

단계: 어휘발달의 가장 초기, 즉 표현어휘수가 0개에서 10개 미만일 때에 영아들이 산출하는 어휘들은 성인언어의 품사기준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어휘들이다. 예를 들어, 이 시기 영아의 어휘는 동물이나 탈것의 소리, ‘안녕’, ‘uh-oh’와 같은 일상생활용어들,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상생활 용어들은 영아가 매우 친숙하고 잘 구조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달성하고자 사용하는 언어적 행위 (speech act or performatives)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명사 혹은 동사와 같은 범주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Tomasello, 1992).

참조(Reference)단계: 표현어휘가 50~200개에 해당할 때, 대부분의 어휘는 명사류이다. 보통명사로만 한정할 때에도 명사가 절대적인 수나 비율에 있어 급등하는 시기이다. 비록 개인차가 있어서(Nelson, 1973), 어떤 영아들은 아직도 많은 일상생활용어와 말놀이의 어휘를 사용하지만 이 시기 영아의 대부분은 참조를 위한 단어들을 주로 사용한다.

서술(Predication)단계: 동사와 형용사는 첫 두 단계 동안 매우 드물게 나타나서 영어권 영아들의 경우 어휘의 0~5%정도를 차지한다. 이 범주는 첫 100단어를 습득하고 난 이후에는 수나 비율에 있어 괄목할 만큼 증가한다. 이러한 어휘구성에서의 변화는 서술, 즉 관계적 의미를 입력하는 능력의 출현을 의미한다. 실제로 50 단어 이전에는 단어조합이 전혀 나타나지

양고(Nelson, 1973) 100단어와 200단어를 획득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 Pethick, 1994). 문법(Grammar)의 출현단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발달의 첫 단계에서 문법적인 기능어는 매우 드물다. Bates 등(1994)에 의하면 24개월까지는 문법적 기능어들이 5% 미만으로 나타나며 총 어휘수가 300개에서 500개 정도가 되어야 비율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400단어 이전 기능어의 출현은 그 시기 이후의 문법발달과 상관이 없거나 부적 상관을 보인다. 반대로 400 단어 이후 기능어의 비율 증가는 형태소의 평균발화길기와 굴절의 산출을 측정하는 다른 측정치들과 동시적이며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

특히 근래에는 어휘수와 문법발달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Bates 등, 1994; Fenson 등, 1994)를 근거로 어휘와 문법의 발달이 동일한 기제를 공유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18개월 이후 36개월까지 한국 영아의 어휘발달 단계에서 표현 어휘의 습득을 관찰하고, 둘째로 전반적인 어휘 크기가 늘어나면서 문법적 기능어의 발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특정기능어의 발생 순서를 기존 선행연구(Caselli, Casadio, & Bates, 1999의 이태리어, 영어)와 비교하여 타 언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본다.

방 법

연구대상

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령집단별 피험자

의 수와 남녀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월령집단 별 사례수

월령집단 (개월)	사례수		
	남	여	전체
18	28	34	62
19	28	27	55
20	28	31	59
21	26	27	53
22	31	28	59
23	25	29	54
24	37	26	63
25	33	28	61
26	24	32	56
27	37	33	70
28	29	35	64
29	29	29	58
30	33	27	60
31	34	27	61
32	28	28	56
33	33	31	64
34	32	33	65
35	29	26	55
36	28	35	63
전체	572	566	1138

연구도구

단어 목록은 최근의 선행연구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이하 MCDI, 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 & Reilly, 1991)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영아들에게 적절하게 일부 수정한 MCDI-K: 유아용(배소영, 2002)을 사용하였다. MCDI는 여러 언어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어휘

체크리스트로 (Dale, 1991; 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 Pethick, 1994) 어머니가 직접 체크리스트에 아동의 표현어휘(영유아용에는 이해어휘 포함)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판인 MCDI-K는 10여년에 걸쳐 한국 영유아들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되었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배소영, 2003).

MCDI-K: 유아용에는 총 641개의 낱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명사는 318개(49.6%), 동사는 150개(23.4%), 형용사는 52개(8%), 일상생활 어휘는 14개(2.2%)였다. 총 641개의 어휘 중 393개(61.3%)가 영어판 MCDI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아용 MCDI-K의 어휘는 24개의 하위범주로 나뉘는데 그 범주는 소리, 탈것, 장난감 및 문구류, 동물, 옷, 음식, 가구 및 방안, 신체부위, 가정용품, 외부사물, 일상생활, 장소, 양 및 정도, 사람, 의문사, 동사, 형용사, 끝맺는 말, 조사, 연결하는 말, 위치, 시간, 대명사, 돕는 말이다.

영어판 MCDI에는 어휘 외에도 문장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MCDI-K에는 어휘만 포함되었다.

절차

검사자가 해당 영아의 집을 방문하여 MCDI-K의 사용법을 어머니나 영아를 가장 잘 아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어머니나 보호자가 직접 MCDI-K를 보며 각 어휘마다 영아가 그 어휘를 직접 표현하는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특히 표현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영아가 발화를 하는 경우, 모방하는 경우, 어찌다가 한 번 정도 발화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참조물이 없을 때에도 영아가 자발적

으로 일관되게 발화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나 보호자들이 MCDI-K를 작성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월령에 따라 달랐으나 평균 10-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처리

Bates, Marchman, Thal, Fenson, Dale, Reznick, Reilly와 Hartung(1994)에 따라 표현어휘의 품사범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보통명사: 명사류에서 바깥 것, 장소, 소리 및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들을 제외한 범주로 동물, 탈것, 장난감, 음식, 옷, 신체부위, 가정용품, 가구 및 방, 외부사물의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 MCDI-K에서는 약 49.6%가 보통명사였으며, 영어판 MCDI에서는 40%에 해당하였다
2. 동사: ‘있다’, ‘서다’, ‘가다’ 등과 같이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 MCDI-K에서는 전체 어휘의 약 23.4%가 동사였다.
3. 형용사: ‘예쁘다’, ‘행복하다’와 같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들. MCDI-K에서는 전체 어휘의 약 8%에 해당하였다.
4. 서술어: 동사와 형용사. MCDI-K에서는 전체 어휘의 약 31%에 해당하였으며, 영어판 MCDI에서는 24%가 서술어였다.
5. 일상생활 어휘: 네/응, 만세, 안녕 등 일상생활 어휘들. MCDI-K에서는 전체 어휘의 약 2.1%에 해당하였으며 영어판 MCDI에서는 10% 미만이었다.
6. 문법적인 기능어: 대명사, 의문사, 양/정도, 끝맺는 말, 조사, 연결하는 말, 위치, 돕는 말 MCDI-K에서는 전체 어휘의 약 12.3%에 해당하였으며 영어판 MCDI에서는 14~15%를 차

지하였다.

위와 같이 단어들이 속한 범주를 나누는데 있어서의 한 가지 기본적인 전제는 한 단어 시기의 영아가 예를 들어, ‘맘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명사로 음식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맘마 주세요’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가능성을 추론하지 않고 그 단어가 성인 언어의 범주에서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은 MCDI 등의 어휘목록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들(Caselli, Casadio, & Bates, 1999)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가정이다.

또 한 가지의 전제는 특히 문법적 기능어에 속하는 어휘들의 경우, 여러 언어적 범주의 어휘들이 포함되었고 또 그 범주가 언어에 따라 각기 다른 품사에 속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접미어, 접속사 등의 문법적 범주들이 함께 기능어에 속하였고 이것이 영어에서의 역할과 한국어에서의 역할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CDI의 어휘목록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대응시킨 MCDI-K의 어휘범주에 따랐다.

결과 및 논의

발달에 따른 어휘수의 변화와 성차

18개월부터 36개월 한국 영아들의 월령 및 성별 표현어휘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7개월에 평균 표현어휘수가 50개를 넘기 시작해서(장유경, 2004), 18개월에는 70개 이상이 되고 20~21개월 사이에 100개가 된다. 표현어휘는 19, 23, 30개월에 잠시 감소하기는 하지

표 2. 월령 및 성별 표현어휘의 평균, 표준편차와 범위 (N=1138)

유형 개월	평균 표현어휘수			범위
	남	여	전체	
18	78.29 (78.51)	73.50 (73.57)	75.66 (75.24)	3-284
19	51.43 (52.03)	70.78 (65.33)	60.93 (59.19)	3-275
20	81.25 (74.86)	99.00 (91.90)	90.58 (84.01)	0-334
21	88.19 (73.29)	153.26 (120.20)	121.34 (104.33)	7-417
22	127.45 (124.14)	213.29 (155.26)	168.19 (145.12)	0-490
23	105.00 (102.72)	204.93 (121.54)	158.67 (122.93)	4-447
24	249.73 (162.94)	308.08 (169.10)	273.81 (166.69)	11-591
25	229.52 (146.11)	352.64 (132.54)	286.03 (152.05)	4-577
26	325.54 (163.98)	324.50 (174.34)	324.95 (168.45)	3-632
27	308.03 (201.30)	366.45 (143.15)	335.57 (177.51)	8-632
28	348.90 (153.10)	410.60 (159.50)	382.64 (158.45)	33-618
29	401.83 (158.82)	419.45 (153.69)	410.64 (155.16)	5-616
30	360.45 (188.19)	415.41 (155.80)	385.18 (175.12)	0-627
31	430.03 (144.11)	406.11 (131.27)	419.44 (137.96)	22-622
32	384.96 (148.44)	455.18 (178.00)	420.07 (137.50)	69-632
33	407.15 (145.03)	476.35 (112.82)	440.67 (134.01)	43-619
34	444.34 (140.63)	524.58 (99.31)	485.08 (127.06)	73-632
35	491.45 (154.02)	489.42 (87.49)	490.49 (125.88)	65-631
36	496.96 (111.48)	501.57 (124.76)	499.52 (118.12)	0-632
전체	289.66 (201.49)	331.65 (194.98)	310.54 (199.30)	0-632

만 꾸준히 증가하여 36개월 유아는 약 500개

의 어휘를 가지게 된다.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월령별 표현 및 이해어휘 수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현어휘수에 대해 월령(19) X 성별(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월령 각각에 따라 표현어휘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더 자세히는 여아(M= 331.65)가 남아(M= 289.66)보다 표현어휘수가 많았다, $F(1, 1137) = 30.99, p = .000$. 월령에 따라서도 표현어휘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18, 1137) = 72.16, p = .000$, Scheffe 사후검증 결과 34, 35, 36개월은 24, 25, 26, 27개월보다 어휘수가 많았고($p < 0.01$), 이는 다시 18, 19, 20, 21개월의 표현어휘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표현어휘수에 있어서 성별과 월령 사이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어휘폭발과 개인차

18~36개월 중 일정 기간에 가장 많은 수의 표현어휘가 증가한 시기를 살펴보면 2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115.14개로, 하루 평균 3~4개의 새로운 어휘를 습득한 셈이 된다.

장유경(2004)의 연구에서 8개월에서 17개월 사이의 영아들의 경우, 12개월에서 13개월, 16개월에서 17개월 사이에 주당 평균 3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아도 23개월경이 훨씬 빠른 속도로 어휘를 습득하는 어휘폭발기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휘폭발이 끝나는 25개월 이후에는 개인차가 심해져서 영아에 따라 표현어휘수에서 500~600개의 차이가 났다.

어휘구성에 있어서 발달적 차이

표현어휘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통명사, 일상생활용어, 형용사, 동사의 비율변화와 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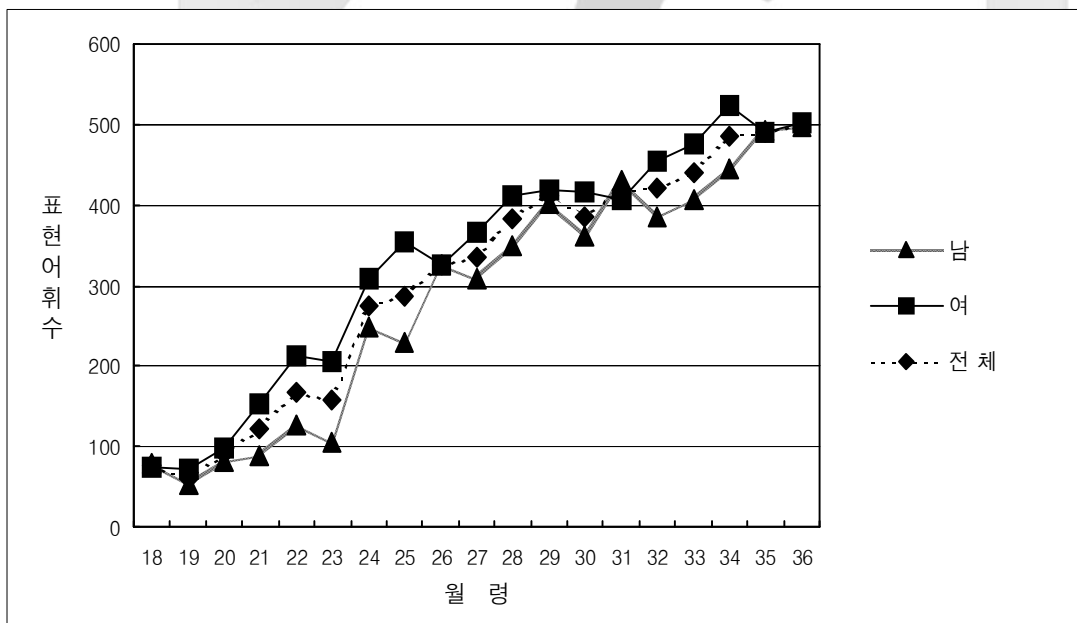


그림 1. 월령별 표현어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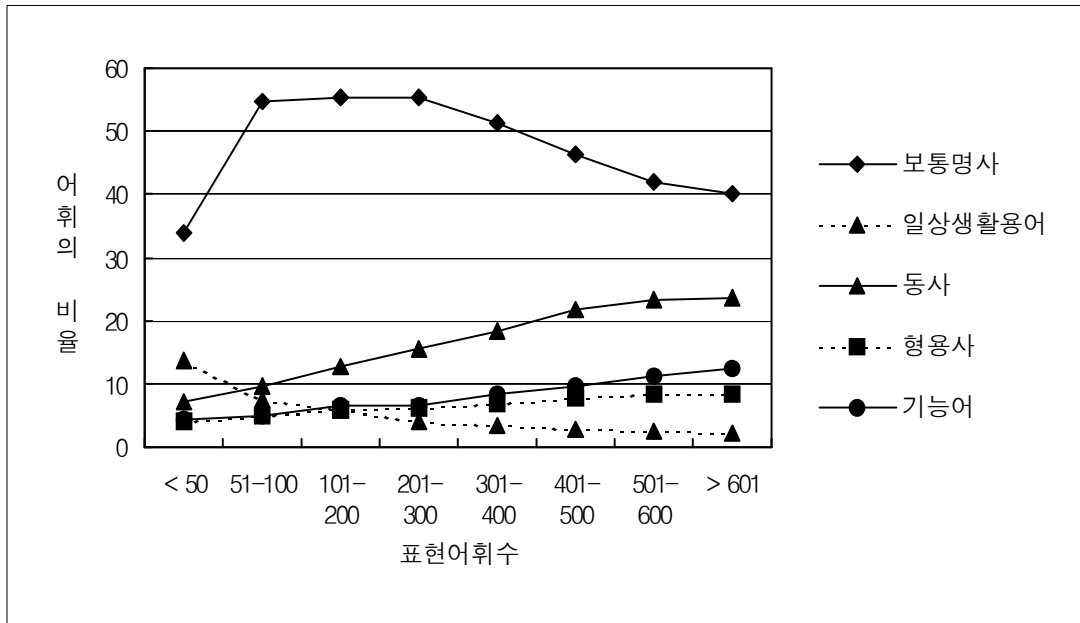


그림 2. 표현어휘집단별 어휘구성

사, 의문사, 양/정도를 나타내는 말, 끝맺는 말, 조사, 연결하는 말, 위치, 돕는 말을 포함하는 문법적 기능어의 비율변화가 그림 2에 나타나있다. 전체 표현어휘수가 51개 이상이 되면서 보통명사의 비율이 급증하고 301개 이상이 되면 오히려 다시 50%대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동사와 문법적 기능어는 전체 표현어휘수가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어휘들을 품사별로 더 세분하여 구체적인 비율의 증감을 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7개월까지의 어휘발달에서는 표현어휘수가 증가하여도 대명사와 문법적 기능어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장유경, 2004).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18개월 이후의 어휘구성에 있어서는 대명사, 문법적 기능어를 포함한 모든 어휘범주의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보통명사의 비율은 전체

표현어휘수가 51개 이상(M= 54.69)이 되면서 급증하여 300개(M= 55.27)가 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301개 이상(M= 51.14)이 되면서부터 보통명사의 비율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601개가 될 때에는 40%선을 유지하였다, $F(7, 1137) = 87.94, p = .00$. 이러한 결과는 Caselli 등(1999)의 연구에서 영어의 경우 전체 표현어휘수가 201개 이상이 되면서 보통명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한국 영아들에게 있어 표현어휘수가 51개 이상이 될 때부터 명사의 비율이 더 빨리 정점에 도달했다가 더 늦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aselli 등의 연구에서 명사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보고 되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는 가능하지 않았다.

한편 일상생활어휘는 전체 어휘가 50개 미만일 때 가장 큰 비율인 13.5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3 . 표현 어휘수 집단에 따른 품사별 구성비율(%) 및 표준편차

품사범주	표현 어휘수									F	p
	50개 이하 (N=166)	51-100 (N=88)	101-200 (N=147)	201-300 (N=126)	301-400 (N=165)	401-500 (N=170)	501-600 (N=221)	601 이상 (N=55)	전체 (N=1138)		
명사류	49.31 (19.08)	64.70 (11.72)	63.22 (10.83)	62.94 (8.78)	59.13 (7.29)	54.56 (4.77)	50.59 (2.48)	49.13 (.66)	56.28 (11.49)	55.87	.00
Scheffé	a	e	de	de	cd	bc	ab	a			
(보통명사)	33.77 (20.09)	54.69 (11.33)	55.47 (11.80)	55.27 (8.34)	51.14 (6.53)	46.41 (4.22)	42.12 (2.04)	40.14 (.57)	46.96 (12.57)	87.94	.00
Scheffé	a	e	e	e	de	cd	bc	b			
(사람)	15.34 (13.84)	9.22 (4.13)	6.40 (2.37)	5.31 (1.26)	5.09 (1.08)	4.90 (.79)	4.91 (.60)	5.17 (.25)	7.00 (6.52)	69.67	.00
Scheffé	a	b	c	c	c	c	c	c			
(장소)	.20 (.94)	.79 (1.27)	1.36 (1.36)	2.36 (1.21)	2.91 (1.06)	3.24 (.79)	3.57 (.48)	3.83 (.19)	2.32 (1.58)	259.81	.00
Scheffé	a	b	c	d	e	ef	fg	g			
소리	21.61 (17.85)	7.97 (4.25)	5.63 (2.20)	3.66 (1.06)	2.87 (.55)	2.27 (.37)	1.95 (.21)	1.78 (.00)	6.05 (9.51)	146.86	.00
Scheffé	a	b	bc	cd	cd	d	d	d			
일상생활	13.58 (11.52)	7.58 (2.95)	5.84 (1.83)	4.19 (1.01)	3.53 (.50)	2.87 (.49)	2.49 (.15)	2.26 (.00)	5.28 (5.81)	109.48	.00
Scheffé	a	b	bc	cd	d	d	d	d			
서술어	11.05 (12.35)	14.81 (10.42)	18.43 (9.24)	22.05 (7.92)	25.25 (6.14)	29.36 (4.20)	31.72 (1.84)	31.96 (.45)	23.39 (10.51)	152.64	.00
Scheffé	a	b	bc	cd	d	e	e	e			
(동사)	7.03 (8.92)	9.74 (8.74)	12.66 (7.51)	15.69 (6.91)	18.26 (5.42)	21.74 (4.29)	23.27 (1.82)	23.64 (.49)	16.75 (8.46)	147.48	.00
Scheffé	a	ab	b	c	c	d	d	d			
(형용사)	4.02 (7.39)	5.06 (3.84)	5.77 (3.39)	6.36 (2.33)	6.98 (2.47)	7.63 (1.90)	8.45 (.68)	8.32 (.21)	6.63 (3.83)	28.58	.00
Scheffé	a	ab	bc	bcd	cde	de	e	e			
문법적 기능어	4.44 (6.28)	4.87 (3.63)	6.45 (3.55)	6.51 (2.59)	8.24 (2.89)	9.53 (2.55)	11.24 (1.64)	12.40 (.37)	8.00 (4.26)	89.22	.00
Scheffé	a	ab	b	b	c	c	d	d			
시간	.00 (.19)	.01 (.31)	.41 (.91)	.65 (.78)	.98 (.77)	1.40 (.76)	2.00 (.57)	2.48 (.31)	1.00 (1.01)	221.99	.00
Scheffé	a	a	b	b	c	d	e	f			

이는 Caselli 등의 연구에서 전체 표현어휘가 50개 미만일 때 일상생활 어휘가 영어에서는 40% 이상, 이탈리아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하다가 표현어휘가 600개 이상일 때 10%대를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MCDI-K보다 영어 및 이탈리아판 MCDI에서 일상생활 범주에 속하는 어휘의 수가 더 많았으며 실제

로 미국 및 이태리 영아들이 이 범주의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사와 형용사를 합한 서술어의 경우에는 11%에서 시작하여 표현어휘가 200개 이상이 되면 20% 이상, 표현어휘가 501개 이상이 되면 3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MCDI-K의 경우, 포함된 동사와 형용사의 비율이 전체 어

휘의 31.4%에 해당되므로 표현어휘가 501개 이상이 되면 영아들이 MCDI-K에 포함된 대부분의 동사와 형용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어의 경우, 서술어의 비율이 10%미만에서 시작하여 표현어휘가 300개 이상이 될 때 20%, 표현어휘가 600개 이상이 되어도 25%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태리어의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였다.

문법적 기능어의 경우에는 4%대에서 시작하여 Bates 등 (199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어휘수가 300개 이상이 되면 8%로 증가하고 600개 이상일 때는 12%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5%대에서 15%대로 증가한 영어와 유사하였다.

초기에 습득되는 문법적 기능어 20위

한편 이 시기 영아들이 산출하는 문법적인 기능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습득을 순으로 20위를 영어, 이태리어와 비교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영어, 이태리어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품사분류에 제한되지 않고 MCDI-K의 어휘범주에 따라 양/정도, 의문사, 끝맺는 말, 조사, 연결하는 말, 위치, 대명사, 돕는 말로 분류하였다.

영어와 이태리어의 경우에는 두 언어 모두에서 소유대명사인 ‘Mine’(이태리어에서는 Mio)이 대명사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으며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quantifier)중에서는 ‘More’(이태리어에서는 ‘Ancora’)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유사점을 보였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MCDI-K의 어휘 중에서, ‘또’, ‘많이’, ‘빨리’, ‘더’ 등 양/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상위 5위중 4개를 차지하였다.

표 4. 영아들이 빈번하게 산출하는 문법적 기능어

순위	한국어		영어		이태리어	
	단어	%	단어	%	단어	%
1	또	72.8	Down	79.4	Mio(mine)	82.4
2	많이	65.9	Mine	78.7	Io(I)	66.6
3	이거	63.4	Up	76.2	Ecco(here)	59.3
4	빨리	62.5	More	75.3	Qui/Qua(here)	59.1
5	더	61.0	Off	70.4	Ancora(more)	58.8
6	-요	60.7	Out	69.4	Giù(down)	57.8
7	무엇때	59.8	On	68.8	Tuo/a(your)	56.7
8	하나	58.9	Me	67.1	Lì/Là(the,that one)	56.5
9	누구	57.4	Inside/In	58.5	Quello/a(that one)	53.6
10	어디	55.4	That	55.2	Questo/a(this)	52.9
11	왜	55.4	What	54.8	Tu(you)	49.0
12	가(이)	54.9	Do	54.3	Tanto(that much)	49.0
13	밖	53.6	You	54.0	Tutto(everything)	47.4
14	나	52.9	I	53.9	Poco(little)	46.9
15	다시	48.5	Here	50.7	Fuori(outside)	46.1
16	-자	47.5	My	50.1	Sotto(under)	45.3
17	앞	46.3	Wanna	49.1	Voglio(I want)	45.1
18	대(양)정도	46.1	This	47.9	Su(up)	43.5
19	-네	45.8	Too	45.8	A(to)	43.3
20	위	45.5	Don't	45.4	Di(of)	42.2

여기에 ‘하나’(8위, 58.9%), ‘다시’(15위, 48.5%), ‘다’(18위, 46.1%)를 포함하여 20위 안에 모두 7개의 양/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어에 있어, 양/정도를 표현하는 어휘가 영어보다 많을 가능성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MCDI-K에 양/정도를 표현하는 어휘가 14개 포함되고 그 중 7개가 20위 안에 포함되는데 비해, 영어판 MCDI에는 양/정도를 나타내는 어휘가 17개 포함되어 있음에도 20위 안에 ‘More’(75.3%)와 ‘Too’(45.8%)가 포함되어 그 습득비율이 낮았다(영어에서 ‘Much’는 16.9%). 한편 이태리어판에서는 양/정도 범주에 21개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0

위 안에 4개가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 영아들의 경우, 적어도 영어권 영아들에 비해 독특하게 이 범주의 어휘들을 빨리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하나’라는 수세기 어휘가 20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독특한데 이는 한국 엄마들이 영아들에게 수세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영신, 1997).

그 다음으로 ‘무엇’(7위, 59.8%), ‘누구’(9위, 57.4%), ‘어디’(10위, 55.4%), ‘왜’(11위, 55.4%) 등 의문사 범주가 4개 포함되었다. 이들의 순서를 정리하면, 무엇→누구→어디→왜의 순서인데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What→Where→Why→How→When 으로 나타나서 한국어의 경우 ‘누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무엇→어디→왜의 순서는 한국어나 이탈리아, 영어 모두에서 공통적인 순서로 보인다.

대명사의 경우에는 ‘이거’(63.4%)가 3위에, ‘나’(52.9%)가 14위에 포함되었다. ‘You’, ‘Tu’와 같은 2인칭 대명사는 영어, 이탈리아에서 20위 안에 포함되었으나 한국어에서는 ‘너’라는 2인칭대명사가 2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의 경우 주어와 자주 생략되는 언어적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생략되지 않는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1인칭 대명사인 ‘나’(52.9%)와 ‘I’(53.9%)가 모두 14위였고, 반대로 한국어처럼 주어와 자주 생략되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Caselli, Casadio, & Bates, 2001) 1인칭 대명사인 ‘Io’(66.6%)가 2위로 빈번하게 습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기능어의 획득을 언어적 입력의 빈도 혹은 인지적 제약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예: 문화적, 화용론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That’, ‘This’, ‘Here’(Ecco, Qui/ Qua, Lì/Là, Quello/a, Questo/a) 등이 습득되었으나 한국 영아들의 경우에는 ‘이것’ 이외에 사물을 지시하는 대명사는 20위 안에 없었다.

다음은 공간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이들은 그 개념의 종류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를 들어, 포함인지 표면인지 정도의--사물의 매우 기본적인 표상수준의 기하학만을 가리키므로 인지적 보편성이 발견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되었다(Levinson, 2003). 예를 들어, ‘in front of’, ‘behind’와 같은 복잡한 공간 관계를 포함하는 처격어는 ‘in’과 ‘on’과 같은 간단한 관계를 암호화하는 처격어 보다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반대로 언어간 차이로 인해 공간부호화에 인지적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제안되었다(Bowerman & Choi, 1994; 2003, Choi & Bowerman, 1991).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on’과 ‘above’는 사물이 표면에 닿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두 경우 모두 ‘위’라는 어휘로 표현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언제, 어떠한 순서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시기가 언어에 따라 다른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결과를 보면,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down’, ‘up’(이탈리아어에서는 ‘Giu’와 ‘Su’)등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비교적 빨리 습득되었다. 영어의 경우 ‘Down’(1위, 79.4%)→ ‘Up’(3위, 76.2%)→ ‘Out’(6위 69.4%)→ ‘On’(7위, 68.8%)→ ‘In’(9위, 58.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50% 이상의 영아들에게서 습득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Giu’(down, 6위, 57.8%)→

‘Fuori’(outside, 15위, 46.1%)→ ‘Sotto’(under, 16위, 45.3%)→‘Su’(up, 18위, 43.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위-아래에서는 ‘아래’가, 안-밖에서는 ‘밖’이 먼저 습득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영아의 경우에는 공간개념을 나타내는 위치어 들의 습득율이 ‘밖’(53.6%)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50% 미만이었다. 이들이 나타나는 순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밖’(53.6%)→‘앞’(46.3%)→‘위’(45.5%)→‘뒤’(44.0%)→‘안’(43.3%)→‘밑’(36.8%)→‘옆’(35.3%)→‘아래’(35.1%)의 순서로 나타났다. 개별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아래에서 ‘위’(20위, 45.5%)→‘아래’(45위, 35.1%)의 순으로 습득되었다. 안-밖에서는 영어, 이탈리아어처럼 ‘밖’(13위, 53.6%)→‘안’(26위, 43.3%)의 순으로 습득되었고, 앞-뒤에서는 ‘앞’(17위, 46.3%)→‘뒤’(24위, 44%)의 순서로 습득되었다. 앞-뒤의 경우에는 영어, 이탈리아어 모두에서 20위 순위 안에 있지 않았으며, 영어와 이탈리아어 모두에서 ‘뒤’를 나타내는 ‘Behind’(22.6%)와 ‘Dietro’(23.32%)가 ‘앞’보다 먼저 습득되었다. 종합하면, 한국어에서는 위치어의 전반적인 습득율이 영어보다 낮고 이탈리아어와는 유사하였고, 안-밖에서 ‘밖’이 먼저 습득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 위치어의 습득 순서가 언어별로 달랐다.

한국어에 독특한 조사는 ‘가(이)’가 12위로 습득되었으며 끝맺는 말로는 ‘-요’, ‘-자’, ‘-네’가 순서대로 습득되었다.

뚝는 말의 경우,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Wanna’, ‘Voglio’(I want), ‘Don’t’가 20위 안에 포함되어 49.1%, 45.1%의 습득율을 보였으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싶다’가 23위(44.5

%)로 습득되었고 그 외의 뚝는 말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 언어 모두에서 ‘욕구’를 나타내는 뚝는 말이 가장 빨리 습득되고 있었다. 이 외에 뚝는 말들을 습득 순서대로 보면, ‘주다’(32.6%)→‘고 있다’(30.1%)→‘보다’(24.6%)→‘놓다’(19.9%)→‘말다’(9.2%)의 순서로 나타났다.

20위 밖의 기능어 중에 연결하는 말의 경우에는 영어와 이탈리아어 모두에서 ‘and’, ‘because’→‘so’→‘but’→‘then’→‘if’의 순서로 습득되었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고’(33.0%)→‘그런데’(28.2%)→‘-는데’(27.3%)→‘-서’(22.8%)→‘그래서’(19.8%)→‘그리고’(18.3%)의 순서로 나타났고 영어의 ‘but’에 해당하는 ‘그러나’, ‘because’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등은 MCDI-K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18~36개월 한국 영아들의 어휘발달을 살펴본 결과, 20~21개월 사이에 100개의 어휘를 습득하며 23~24개월 사이에는 어휘폭발이 일어나서 하루 평균 3~4개의 새로운 어휘가 습득되는 셈이다. 36개월 경에는 약 500개의 표현어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표현어휘를 가지고 있었다.

어휘들의 구성비율을 보면 17개월까지는 명사가 전체 어휘 중 26.7%를 차지하였으나 18개월 이후 전반적인 표현어휘의 증가와 함께 55%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여 평균 46%를 차지하였다. 반면 동사와 형용사는 30%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평균 23%를 차지하였다. 문법적인 기능어의 비율은 4%에서 시작하여 표현어휘가 300개 이상 되면서 8%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어휘의 구성을 영어, 이탈리아어와

비교하여 보면, 세 언어 모두에서 명사의 비율이 최대 55%~60%를 차지하였고, 동사 및 형용사의 비율은 최대 25%~30%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 시기 영아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문법적 기능어의 비율도 최대 15%로 유사하였다. 따라서 언어구조가 상이한 세 언어에서 18개월 이후 영아들이 습득하는 어휘들의 구성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 영아들이 산출하는 문법적 기능어들을 영어, 이탈리아어와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한국 영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어들에는 주로 양, 정도를 나타내는 말(‘더’, ‘또’, ‘많이’, ‘빨리’)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대명사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습득을 20위 안에 들어 있지 않지만, 영어, 이탈리아어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빨리 습득 되었다(영어 54%, 이탈리아어 49%). 또 1인칭 대명사인 ‘나’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동일하게 53% 정도의 습득율을 보이고 있고 이탈리아어에서는 67%로 비교적 빨리 습득되는 어휘였다 셋째, 위치를 나타내는 어휘들의 경우, 앞-뒤의 어휘가 영어, 이탈리아어에서는 20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어에서는 ‘앞’이 포함되었다. 또 위-아래의 경우, ‘아래’가 먼저 나타나는 영어, 이탈리아어와는 반대로 한국어에서는 ‘위’가 먼저 습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어휘습득에서의 언어적 차이를 지지하는 증거로 보인다(Choi & Bowerman, 1991).

그러나 언어 간 공통점도 나타난다. 첫째, 의문사의 습득 순서를 볼 때 세 언어 모두에서 무엇→ 어디→ 왜의 일정한 순서로 습득되었다. 둘째, 안-밖의 경우, 세 언어 모두에서 ‘밖’→ ‘안’의 순서로 습득되었다. 셋째, 돕

는 말의 경우, 욕구를 나타내는 ‘싶다’가 세 언어 모두에서 가장 먼저 습득되는 돕는 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휘습득에 있어 언어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어휘습득 상황이 존재하거나 혹은 영아가 가진 인지적 제약성의 영향을 시사한다 (Gentner, 1982; Markman, 1989; Markman & Hutchinson, 1984).

본 연구에서는 어휘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18개월 이후 영아의 어휘발달을 알아보았고, 영어, 이탈리아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비교를 해보았다. 그 결과 위에 언급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휘체크리스트를 통해 문법발달의 세부사항을 조사하는 것에는 분명히 제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어나 이탈리아어에서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어로는 ‘안’이라는 어휘보다는 ‘넣다/끼다’ 등의 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Choi & Bowerman, 1991). 따라서 향후 영아들의 실제 발화사례 속에서 문법적 기능어의 사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18개월 이후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의 습득어휘구성에서 언어 간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다는 것과 동시에 개별 문법적 기능어의 습득순서에는 언어 간 차이가 존재함을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습득과정에서의 언어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역할이 언어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Bloom, 1998), 어휘의 범주에 따라서도 달라질 가능성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박영신 (1997). 두 가지 수체계의 대응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 77-97.
- 배소영 (2003). 영유아기 의미평가도구 MCDI-K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 연구*, 8, 1-14.
- 배소영 (2002). MCDI-K 유아용. *한국영아발달연구 센터*.
- 장유경 (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8개월 ~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77-99.
- Bates, E., Marchman, V., Thal, D., Fenson, L., Dale, P., Reznick, S., Reilly, J., & Hartung, J. (1994).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 in the composition of early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1, 85-124.
- Bloom, L. (1998). Language acquisition in its developmental context. In D. Kuhn and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Tinker, E., & Marguluis, C. (1993). The words children learn: Evidence against a noun bias in children's vocabularies. *Cognitive Development*, 8, 431-450.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The use of single-word utterances before syntax*. The Hague: Mouton.
- Bowerman, M., & Choi, S. (1994, November). Linguistic and nonlinguistic determinants of spatial semantic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Boston, MA.
- Bowerman, M., & Choi, S. (2003). Space under construction: Language-specific spatial categorization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In D. Gentner, & S. Goldin-Meadow (Eds.), *Language in Min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aselli, C., Casadio, P., & Bates, E. (1999). A comparison of the transition from first words to grammar in English and Italian. *Journal of Child Language*, 26, 69-111.
- Caselli, M. C., Casadio, P., & Bates, E. (2001).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Italian. In M. Tomasello & E. Bates (Eds.), *Languag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hoi, S., & Bowerman, M. (1991).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s. *Cognition*, 41, 83-121.
- Dale, P. S. (1991). The validity of parent report measure of vocabulary and syntax at 24 month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4, 565-571.
- Dromi, E. (1993). The mysteries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In E. Dromi (Ed.), *Language and cogni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32-60). Norwood, NJ: Ablex.
- Dromi, E. (1987). *Early lexical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Bates, E., Thal, D. J., & Pethick, S. (1994). Validity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Serial No. 242).
- Fenson, L., Dale, P., Reznick, J. S., Thal, D., Bates, E., Hartung, J., Pethick, S., & Reilly, J. (1993).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 Gentner, D. (1982). Why are nouns learned before verbs: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In S. A. Kuczaj II (Ed.), *Language development: Vol. 2. Language, thought and*

- culture*. Hillsdale, NJ: Erlbaum.
- Levinson, S. (2003). Language and Mind: Let's get the issues straight! In D. Gentner, & S. Goldin-Meadow (Eds.), *Language in Min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Markman, E. (1989). *Categorization in children: Problems of induction*. Cambridge, MA: MIT Press, Bradford Books.
- Markman, E., & Hutchinson, J. E. (1984). Children's sensitivity to constraints on word meaning: Taxonomic vs. thematic relations. *Cognitive Psychology*, 16, 1-27.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 (Serial No. 149).
- Tomasello, M. (1992). *First verbs: a case study of early grammatical development*. Cambridge: C.U.P.
-

1차 원고 접수 : 2004. 10. 13

수정 원고 접수 : 2004. 11. 20

최종게재결정 : 2004. 11. 25

K C I

Early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18~36 Months

You-Kyung Chang-Song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The early lexical development was examined with 1138 Korean infants between 18 and 36 months of age.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infants had 100 words around 20~21 months. The vocabulary spurt was observed between 23 and 24 months. Also they had two times more nouns than predicates(verbs and adjectives). The proportion of grammatical function words was increased with vocabulary size. However the acquisition order of function words which represent location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of English and Italian.

Keywords: lexical development, 18~36 months, vocabulary spurt, function words